

25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6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27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칠 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28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29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30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31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32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33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34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오분의 일을 거두되
 35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 두게 하소서
 36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41:25-28/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하나님이...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바로에게 미리 알리시는 것.

'칠 년이요': '7'이라는 숫자가 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해석-농경과 관련된 꿈이기에 유추 가능?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꿈과 그 해석이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 것임을 강조.

41:29-32/ '풍년': 41장에 여섯 번 등장. '흉년': 41장에 여덟 번 등장

'풍년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기근의 정도가 심각하여 풍요의 시기가 기억에서 사라짐.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그 성취의 임박에 대한 확언을 담고 있음.

- 요셉의 꿈과 관리들의 꿈에서 입증.

41:33-36/ '이제 바로께서는...': 왕의 요구구의 경계를 넘어서 통치자가 취할 단계가 무엇인지 조언.

'명철하고 지혜 있는... 다스리게 하시고': 현인을 책임자로 두어야 함.

'감독관들을 두어... 오분의 일을 거두되': 첫 7년 기간 동안 연간 산출의 오분의 일을 세금으로 징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징수, 저장, 지키는 데에는 바로에 준하는 권력이 필요.

37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38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39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40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41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42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43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앞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44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45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46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삼십 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41:37/ '좋게 여긴지라': 바로와 신하들은 모두 요셉의 지혜를 깨닫고 요셉의 의견을 환영.

41:38-40/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만이 꿈의 중대성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 요셉의 계획이 큰 시야를 가진 것이어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심: 요셉을 탁월한 자리에 세운 이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 33절에서 요셉이 쓴 표현.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39, 41,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인가를 내렸다는 사실이 도입부로 강조.

'내 집을 다스리라': 보디발의 집에서 그랬듯 왕의 집안 전체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음.

요셉의 명목상 지위가 무엇인지는 불확실

- 셈 족속, 셈족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애굽 왕조에서 고위직을 차지한 사료가 존재.

41:41-43/ '애굽 온 땅': 41절의 시작과 43절의 마지막. 요셉이 가진 권력의 범위는 바로의 영토 전역.

'인장 반지': 바로의 통치권의 핵심 표식 / '세마포': 애굽 임명식의 특징.

'버금수레': '2인자'의 상징. '앞드리라': '비키다'의 의미.

41:44/ '나는 바로라': 요셉을 임명하는 일에 바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최고 권력자인 자신의 지위를 단언.

- 요셉을 따름에 유일한 예외가 왕이기 때문.

'네 허락이 없이는' 요셉을 바로에 버금가는 정점의 지위에 세움.

41:45-46/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트바네아라 하고...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요셉의 애굽화를 완성.

'온': 애굽의 태양신인 레와 아툼의 명망있는 종교 중심지. 레에게 바친 최초의 신전이 있던 곳.

- 랍비들은 요셉이 이교 제사장의 딸과 혼인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서 아스낫이 디나와 세켄의 딸이라고 주장.

'삼십 세라': 어린 나이에 눈에 띄는 위업을 달성 -요셉은 80년 간 통치. 가나안에서 온지 17년이 흐름.

'온 땅을 순찰하니': 왕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 - 히브리 노예였던 요셉이 온 땅의 주인이 됨.

47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48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칠 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 두매

49 쌓아 둔 곡식이 바다 모래 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41:47-49/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의 해석대로 풍부한 수확을 거둠.

'바다 모래 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산출량을 문서화하기 불가능한 만큼 엄청난 규모의 수확.

50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51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52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41:50-52/ '흉년이 들기 전에... 두 아들이 나되': 풍요의 해를 상징. 요셉은 아들들에게 히브리 이름을 지어줌.

'므낫세': '그가 잊게 만들었다' - 하나님이 나를 잊게 만들었다.

'고난': 요셉이 겪은 슬픔 - 애굽에서 히브리 노예들이 고통 당한 노예를 묘사하는 단어(신 26:7; 민 23:21).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형제 간의 갈등.

'에브라임': '열매 맺다'.

'내가 수고한 땅': 이름은 긍정적이지만 어조는 자신이 애굽에서 겪은 고생의 관념을 유지.

- 요셉이 느낀 모순적인 감정을 반영: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집안을 잊기를 원함.

53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54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55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56 온 지면에 기근이 있매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새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57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41:53-55/ '요셉의 말과 같이': 모든 사건은 요셉이 말한 대로 일어남.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요셉의 지혜로운 관리 때문에 주변 국가 중에서 애굽만 기근을 피함.

41:56-57/ '온 지면에 기근이 있매...모든 창고를 열고... 팔새': 요셉의 자비와 기근의 심각한 정도를 나타냄.

5. 형제들의 애굽 여정 (42:1-43:34)

핵심주제

- 1) 가족 균열, 편애, 형제들의 여행, 기만, 꿈에 대한 기억, 형제를 잃게 된 일, 아버지의 슬픔 등 37장의 여러 요소들이 다시 등장.
- 2) 37장 이후로 요셉은 많은 변화를 겪었으나 가족들은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없음-야곱의 편애와 형제들의 연약함.
- 3) 그러나 두 차례 애굽을 다녀옴으로 이들의 서로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변화.
- 4) 야곱은 베냐민을 놓아줌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저항할 수 없음이 드러남.
- 5) 하나님의 자비는 기대치 않은 방식으로 돌연히 일어남.

1) 베냐민이 빠진 첫 번째 여행 (42:1-38)

- 1 그 때에 야콥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 2 야콥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 3 요셉의 형 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 4 야콥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 5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42:1-2/ '야콥이... 너희는 어찌하여': 애굽에 곡물이 있다는 소식에 대한 반응으로 야콥은 아들들의 우유부단함을 책망.
- 기근을 예견한 요셉의 통찰과 형제들의 무능함을 대조.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가나안의 상황은 생사가 달린 필사적인 상태.

42:3-4/ '요셉의 형 열 사람'; '야콥의 아들'이 아닌 '요셉의 형제들'로 묘사 - 과거의 사건을 강조.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야콥의 편애를 암시. 형제 간의 반복이 다시 드러남.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콥은 요셉의 죽음에 아들들의 책임이 있다고 여김.

42:5/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브라함 또한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감(12:10-13:1).

- 6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 7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 8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 9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곧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 10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 11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 12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 13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 14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42:6-8/ '요셉이 총리로서... 곡식을 팔더니': 요셉이 직접 식량의 할당을 관리하여 형제들을 직접 접촉할 수 있게 됨.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적절한 예의를 넘어서서 요셉의 꿈을 이루는 것.

'알아보았으나(나카르)': 야콥이 알아본 피 묻은 의복, 형제들의 모의(이트낙클루)를 연상.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형제들의 어리석음에 대비되는 요셉의 지혜.

42:9-14/ '곧 꿈을 생각하고... 너희는 정탐꾼이라': 형들에게 간첩혐의를 부여하는 것은 꿈에 대한 기억과 관련 있음.

'생각하고(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억, 술 맡은 자의 기억/ 요셉은 과거를 잊고 싶었으나 그럴 수 없음.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형들을 과거에 실패했던 상황에 동일하게 둘 것.

- 형제들을 가두고 금전적 수익(시므온)과 경쟁자(베냐민)를 제거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상황.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단호하고 공손에게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요셉의 베냐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에 위안.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 없어진 하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형제들.

'너희는 정탐꾼이라': 요셉의 거둬진 혐의로 인해 형들은 요셉이 구덩이에서 거부당한 것과 같은 처지가 됨.

- 15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 16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간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 17 그들을 다 함께 삼 일을 가두었더라

42:15-16/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가족에 대한 이들의 증언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입증

- 실제 목적은 베나민을 애굽으로 데려와 자신의 보호 아래 있게 하는 것.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시험' - '정제하다, 제거하다'

- 아버지와 아우에 대해 진실한 지의 여부를 시험함과 동시에 과거의 죄에 대한 회개를 끌어내고자 하는 것.

42:17/ '삼 일을 가두었더라': 자기 반성이 깊어졌을 시간. 그러나 누구도 자원하지 않음(44:33과 비교).

18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19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20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21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2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 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23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24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42:18-20/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여호와'가 아닌 엘로힘. 약자를 괴롭히지 않는 도덕적 성품을 강조.

- 이중적 의미: 형제들의 입장에서 요셉의 말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사흘 후에 요셉도 형제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맹세의 조건을 바꿈.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 가족들에게 필요한 식량 공급과 더불어 어린 요셉이 직면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함.

42:21-24/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이 시험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여 자신들의 죄책을 고백.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의 '괴로움'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응보.

'르우벤이...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신은 정당했음을 주장.

'통역을 세웠으므로... 알지 못하더라':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요셉과는 대조적인 형제들의 어리석음.

'울고 다시 돌아와서': 형제들에게 가진 약한 마음이 점차로 증명.

'시므온을 끌어내어 결박하고': 요셉이 직접 형을 결박한 것으로 읽을 수도 있음.

* 시므온 선택의 이유

- 르우벤은 결백을 주장했기 때문에 차남인 시므온을 선택했을 가능성.

- 시므온은 야곱을 분노하게 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시므온을 버리기 더 쉬웠을 것.

25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 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26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 곳을 떠났더니

27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28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 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42:25-28/ '곡물을... 채우게 하고... 돈은... 도로 넣게 하고': 요셉의 모호함 - 무정한 심문자인 동시에 상심한 아우.

- 형제들이 부정직한 사람들이라는 혐의를 날조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

- 가족들을 위한 호의.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간접 혐의에 절대 혐의가 더해짐으로, 자신들의 결백 주장이 무위로 돌아갈 위기.

'하나님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믿음.